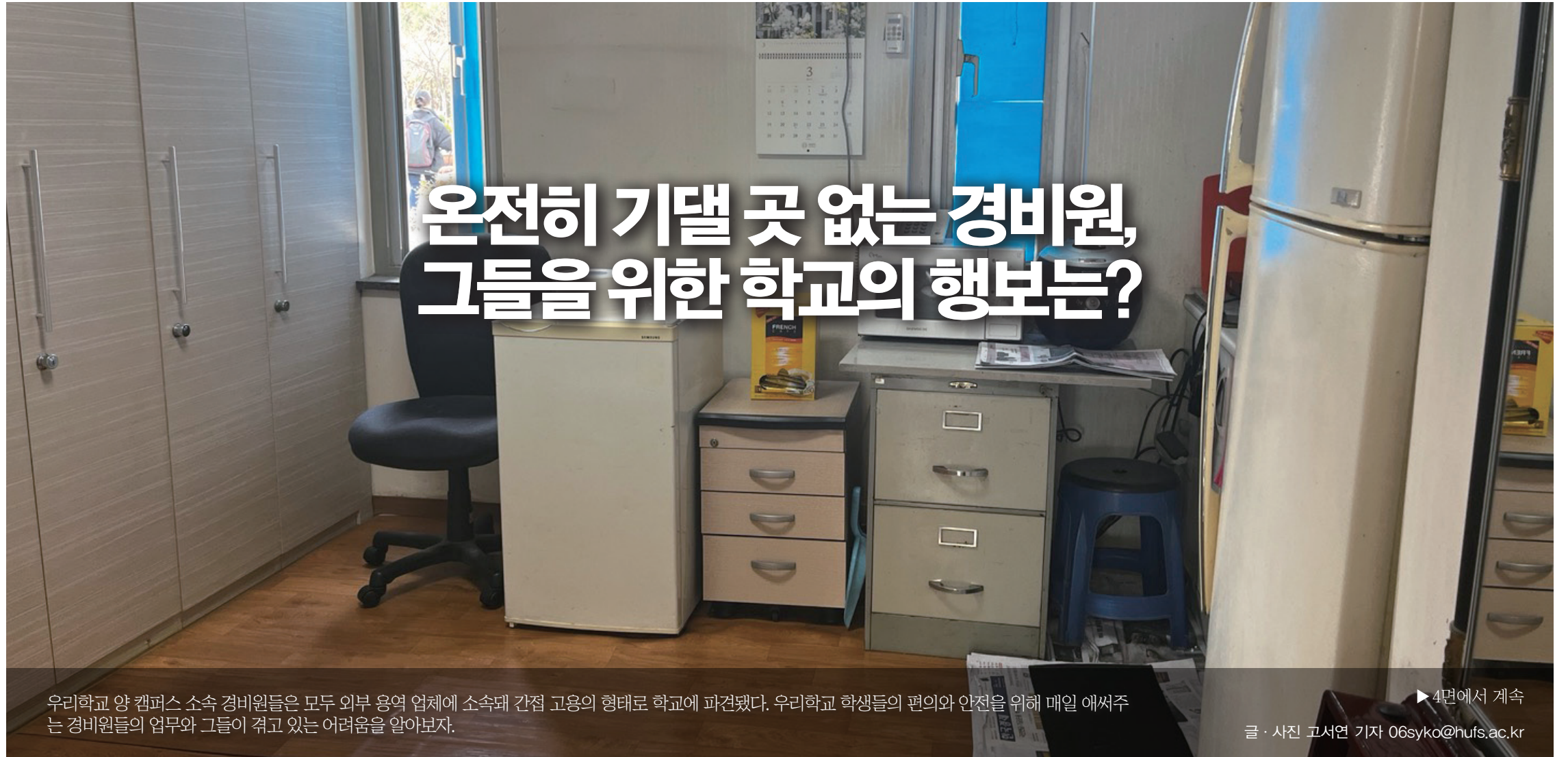


[기획] >> 3면
우리학교 폐강절차

[기획] >> 5면
캠퍼스 내 소음문제

[사회] >> 8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

[인물] >> 12면
김종서 아톤 대표를 만나다



온전히 기댈 곳 없는 경비원, 그들을 위한 학교의 행보는?

우리학교 양 캠퍼스 소속 경비원들은 모두 외부 용역 업체에 소속돼 간접 고용의 형태로 학교에 파견됐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매일 애써주는 경비원들의 업무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고서연 기자 06syko@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제2기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 서포터즈 발족해

지난 13일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이하 진취센터)는 진취센터의 인지도 향상과 재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한 제2기 진취센터 학생 서포터즈를 발족했다. 총 6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이번 서포터즈는 이번 해 7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및 진취센터 프로그램 홍보를 담당한다. 또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취센터는 학생 서포터즈에게 우선적으로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활동 종료 후 수료증명서 및 활동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허건(상경·경제 18) 2기 서포터즈 대표는 “서포터즈로서 진취센터와 학생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서포터즈인 만큼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면 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민정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서포터즈 활동이 학생의 눈높이에서 기획된 콘

텐츠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내 구성원에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업을 앞둔 고학년뿐만 아니라 저학년 학생들도 진취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기 개발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통해 원스톱 진로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를 재학생들에게 제공해왔다. 지난해부터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의 후속 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더욱 강화된 진로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거점형 운영대학’으로서 재학생은 물론 지역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원 기반 시설 구축△진로취업 교육 강화△전문 통합 상담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우리학교, 용을식 KDI 회장 강의실 헌정식 개최해

지난 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인문과학관(이하 인문관) 401호 강의실에서 용을식 KDI 그룹 회장(이하 용 회장) 강의실 헌정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용 회장이 우리학교 발전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2억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헌정식엔 △박정은 총장(이하 박 총장)△박정식 ELLT학과 학과장 △반병렬 반씨대중회장△안병수 우리학교 총동문회 고문 △윤용로 전 우리학교 영어대학 동문회장△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 △정은규 영미문화·문화학과 학과장△주영림 영어대학 동문회장△홍성훈 영어대학장과 더불어 용 회장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박 총장은 “용 회장은 1960년대에 해외에 진출해 성공을 거둬으로써 후배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개척자다”며 “우리학교 구성원 전체를 품는 포용 정신은 모두가 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용 회장은 “기부금을 바탕으로 우리학교를 널리 알리고 세계인들과 교류하며 학교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용 회장은 우리학교 영어대학 영어과를 졸업한 후 현재 KDI 그룹의 모태인 KDI 인터내셔널(KDI International)을 설립했다. 화학·석유제품들을 주력 무역 상품으로 두고있는 KDI 인터내셔널은 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힘입어 사업규모를 크게 확장했다. 1975년과 1978년엔 남덕물산 주식회사와 영진탱크터미널 주식회사 등의 계열사를 차례로 설립했다. 현재 KDI 그룹은 화학 석유류 유통사업과 탱크 터미널 사업에 정진하고 있다. 용 회장은 △1970년 국제청년회의소 JCI 세계부회장△1974년 한 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1982년 제7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1984년과 1991년에 각각 석탄산업훈장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윤성민 기자 06seongmin@hufs.ac.kr

Dr.Puri

살림이 바뀌면 생활이 바뀐다

아임프리, 닥터퓨리

마스크부터 생필품까지
자취꿀템 여기에 다!



N 닥터퓨리

<https://drpuri.co.kr>

<https://brand.naver.com/drpuri>



우리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제17기 사업단 출범해

지난 8일 우리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 사업단)이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401호에서 활동을 공식화했다. 우리 학교 GTEP 사업단은 지난해 9월부터 인원 모집을 시작해 공식적으로 'GTEP 사업단 제17기'를 선발했다. GTEP 사업단은 △본부장 2명△팀장 6명△홍보팀 3명을 포함한 30명으로 구성됐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우리학교에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글로벌 비즈니스 문화 및 협상전략△대학생 무역실무△산학협력 현장학습△온라인 해외 마케팅 실습△전자상거래 등의 교육을 통한 무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무역박람회 참여 기업에 파견된 학생들은 박람회 운영과 바이어 응대를 직접 경험하며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GTEP 사업단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무역이론 및 △북미△아시아△유럽△중남미 등 해외지역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번 해 활동을 시작한 우리학교 GTEP 사업단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파부미용전시회 '두바이 다마 미용 전시회



▲우리학교 제17기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출처: 전락홍보팀)

(Dubai Dama)에 참가했다. 이들은 피부 미용 제품을 주력 생산하는 업체인 아운메디(Ayonmed)와 협업해 보톡스와 필러 등의 제품을 전시 및 판매했고 바이어들과

의 상담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세계 3대 미용전시회인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전시회(Italy Bologna)에 참석해 전 세계 2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오유 인터네셔널(OU International)'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더불어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모나코(Monaco)에서 개최되는 '모나코 AMWC(Aesthetic and anti-aging Medicine World Congress)'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박재승 우리학교 GTEP 사업단 단장은 "변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만큼 제17기 GTEP 사업단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학교 GTEP 사업단이 특화된 무역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성민 기자 06seongmin@hufs.ac.kr

우리학교, 동대문구와 초등생 대상 어학 멘토링 협약 체결해

지난 10일 우리학교는 동대문구와 초등학생의 어학 멘토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거주하는 교육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했다. 양측은 어학 멘토링 사업에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협약식엔 △김현정 교육혁신원장(이하 김 원장)△박정운 총장 △양옥섭 행정국장△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하 이 구청장)△장봉희 미래위원회 위원장 △정일영 교육지원과장 등 양측 관계자가 자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가 필요한 멘티 발굴△멘토단 구성 및 관리△멘토링 사업 실비 지원△외국인 유학생 및 재학생 참여 독려 등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어 구사 역량이 뛰어난 우리학교 재학생과 외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멘티를 교류할 예정이다. 우리학교 교육혁신원이 '동대문구 어학 키다리 서포터즈'를 창설해 교육봉사 경력과 어학 능력이 뛰어난 재학생을 선발하면 동대문구청은 서포터즈의 활동금을 지원하게 된다. 동대문구는 지난 2012년부터 멘토링 사업을 시작해 이번 해에도 어학·학교·학사 연계 3개 분야 멘토



▲어학 멘토링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 모습(출처: 전락홍보팀)

140명과 멘티 28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김 원장은 "학교를 대표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학습격차를 좁히는 데 일조할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

다"며 "멘토단 발대식과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해 서포터즈의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관내 교육복지 대상 초등학생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배움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희준(사범·영교 18) 씨는 "우리 공동체 사회이기에 교외 교육도 학교의 기능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협력은 지역 공동체를 함께 발전시킨다는 데 의의가 큰 만큼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학 서포터즈는 이번 해 4월부터 8월까지 1기 활동을 진행하고 이번 해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2기 활동을 진행해 연간 두 차례 운영된다. 어학 서포터즈는 지난 15일 접수를 마감해 지난 28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Minerva Complex) 국제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 법무법인 바른과 법률고문 위촉식 진행해

지난 9일 우리학교 직원노동조합인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이하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는 이문일 공철 1호점 лек처룸(Lecture Rooms)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은 국내 대형 로펌 '법무법인 바른'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 문기주 변호사와 이종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번 계약은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 설립 이후 로펌과의 법률 자문 계약을 맺어 고문 변호사를 위촉한 최초의 사례다.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은 조합 활동에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 및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일률적인 법률 자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 법률 자문의 범위는 조합 활동과 관련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검토 및 작성△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법률 자문△법원·행정부 등 기관에 대한 법률 행위의 대리 및 접촉△일반적인 법률문제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종원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 지부장은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 고문으로 위촉된 문기주 변호사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수임을 통해 쌓아온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987년에 설립된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공정하고 재미있는 노동조합의 출입말인 '상원공제'를 별칭으로 삼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교의 3주체 중 하나인 직원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목표로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제1회 HUFStory 북토크' 행사 개최해

지난 15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 1층 열린 공간에서 제1회 HUFStory 북토크(이하 북토크)가 개최됐다. 북토크는 우리학교 교수와 동문 연사를 초빙해 저서와 번역서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강연은 정은귀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이하 정 교수)가 담당했다. 정 교수는 신문과 잡지에 다수의 칼럼을 연재했고 현재까지 열다섯 권의 영한 및 한영 번역 시집과 두 권의 산문집을 출간했다.

이날 행사는 설캠 도서관 1층 열린 공간에서 △조희문 설캠 도서관장(이하 조 도서관장)의 환영사△북토크△질의응답△저서 사인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정 교수의 산문집 '떨기 따리'가자에 저술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윌리엄 카로스 윌리엄스(William Carlos Williams)와 루이즈 글릭(Louise Glück) 등 여러 시인의 작품을 감상하며 함께 소감을 나눴다. 질의응답 시간엔 학생

들이 다양한 작품들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정 교수가 정성껏 답을 하며 학생들과 깊이 교감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도서관장은 "처음 개최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큰 관심을 가져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며 "다음 행사에서도 많은 학생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연자로 나섰던 정 교수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학생들 덕분에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우리학교 학생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실제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책의 소중함을 느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성민 기자 06seongmi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3.04.21(금) ~ 05.04(목)	2023.05.22(월) ~ 06.02(금)
고사장 발표	05.11(목) 15:00	06.08(목) 15:00
면접전형	05.13(토) 10:00 예정	06.1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25(목) 15:00	06.22(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05.29(월) ~ 06.02(금)	06.26(월) ~ 06.30(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용 위한 한국 문화·문화학과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제출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료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번역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d.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빈틈 있는 폐강절차, 불만 가득 학생사회

지난 15일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폐강된 강의 목록과 함께 폐강 과목 대체 수강 신청서가 게시됐다. 이후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엔 폐강기준 및 폐강 공지 시점과 관련해 학생들의 불만 사항

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우리학교 폐강 현황△폐강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함△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폐강 기준 및 폐강 강좌 현황

우리학교 폐강 기준은 △교양△교직 및 융합전공과 부전공△단과대학 공통영역△전공 및 이중전공에 따라 구분되며 해당 과목의 개설 강좌 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교양수업 중 일반교양은 단일강좌의 경우 수강생 15명 이하 그리고 분반이 개설된 경우 수강생 20명 이하인 강좌가 폐강된다. 교양외국어 및 체육실기 수업은 단일강좌의 경우 10명 이하 그리고 분반이 개설된 경우 15명 이하의 강좌가 폐강된다. 교직 및 융합전공과 부전공 과목은 단일강좌의 경우 5명 이하 그리고 분반이 개설된 경우 수강생 10명 이하의 강좌가 폐강된다. 단과대학 공통영역 과목은 개설된 강좌 수와 상관 없이 수강생 10명 이하의 강좌는 폐강된다. 전공 및 이중전공 과목은 입학 정원 수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입학 정원이 21명 이하일 때 단일강좌의 경우 수강생 4명 이하 그리고 분반이 개설된 경우 수강생 10명 이하의 강의가 폐강된다. 입학 정원이 22명 이상 30명 이하의 경우 단일강좌 수강생 5명 이하 그리고 분반 10명 이하의 강좌가 폐강된다. 입학정원 31명 이상 50명 이하일 땐 단일강좌와 분반 인원이 각각 8명과 10명일 경우 폐강된다. 마지막으로 입학정원이 51명 이상 일 땐 강좌 수와 상관없이 수강생 10명 이하의 강좌가 폐강된다. 이때 동일한 과목이 1전공과 이중전공 영역에 중복 개설된 경우엔 해당 강좌를 분반으로 간주한다.

한편 우리학교의 폐강 공고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종료 후 2학년 이상 대상 강좌 중 수강인원이 0명인 강좌가 자동으로 폐강되고 수강 정정기간 종료 후엔 학년에 관계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강좌가 폐강된다.

지난 15일에 게시된 우리학교 폐강공고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에서 총 41개의 강좌가 폐강됐다. 그중 15개의 강좌는 교양 과목이며 26개의 강좌는 전공 및 이중전공에 해당한다. 글로벌캠퍼스에선 총 50개의 강좌가 폐강됐는데 그중 20개의 강좌는 교양과목이며 30개의 강좌는 전공 및 이중전공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일부 교양 과목은 △대학외국어△미네르바인문△신입생세미나와 같이 대체할 강좌가 충분하지만 전공 및 이중전공 단일강좌의 경우 대체강의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폐강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함

외대학보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폐강 절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의 폐강 통보를 경험한 학생 중 76.9%가 정정기간 이후에 폐강 공지를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정정기간 이전에 공지를 받

은 학생은 23.1%이며 이 가운데 7.7%만이 개강 전 폐강 공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교 및 과목별로 폐강 공지 시기에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응답자 중 88.5%는 폐강 기준을 정확히 알고있지 않다고 답했다. 우리학교 폐강 절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 중 19.2%만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0.8%의 학생들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폐강 절차가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선 △대체 강좌수의 부족(71.4%) △늦은 폐강 공지(66.7%)△불명확한 폐강 기준(47.6%)을 꼽았다.

학생들이 문제점으로 꼽은 우리학교의 불명확한 폐강 기준은 △과목△단과대△전임교수에 따라 예외사항이 존재하거나 적용 기준이 상이해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일부 과목의 경우 폐강 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폐강되지 않으며 반대로 폐강 기준이 아님에도 폐강되는 강좌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폐강 및 강좌 존속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기에 폐강 공고가 올라오기 전까지 자신이 수강신청한 과목의 폐강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

또한 폐강된 강좌에 대한 대체강좌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수강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교수님께서 해당 과목이 폐강되지 않는다고 공지했으나 2주차 수업 이후 폐강 통보를 받았다”며 “시간표도 이미 구성된 상태였는데 수강 변경 신청을 하려고 보니 대체할 선택지가 적어서 불편했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관리하는 부처인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중지)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폐강 공고는 2주차 수업이 끝난 후에 게시된다. 폐강 강좌를 확정짓는 과정에서 학중지는 수강 정정기간 이후 학과측에 미리 폐강 가능성이 있는 강좌를 고지하고 해당 강좌의 존속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접수받는 기간을 가진다. 일부 수업의 경우 부득이하게 폐강될 수 있으며 반대로 폐강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교직이수△분반 수용 불가

△졸업 필수 요건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학과측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은 뒤 교무처장의 심사를 거쳐 폐강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도 수강 정정기간 이후 바로 폐강을 확정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한양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수강 정정기간 내에 폐강 가능성이 있는 강좌 목록을 여러차례 공지해 자신이 신청한 강좌의 폐강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폐강과목 대체 수강신청 시 잔여석이 존재하지 않는 강좌도 ‘수강인원 초과 교과목 추가 수강신청 요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교수의 판단 하에 해당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폐강은 불필요한 강좌수를 줄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불명확한 폐강 기준 및 절차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학교 폐강 절차의 개선방안으로 △명확한 폐강 기준 설정△정정기간 내 폐강 공지△폐강된 강좌의 수강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학생들이 폐강 기준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수강편람에 폐강 기준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형(아시아·마인어 21) 씨는 “언어과의 경우 개설되는 강좌 수가 적고 수강신청한 강좌가 폐강되면 다른 강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폐강 기준을 명확하게 공지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폐강 절차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강신청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폐강기준

개설 영역	유 형	폐강 대상 강좌별 수강 인원		비 고
		1개 강좌만 개설	분반 개설	
전공/ 이중전공	① 입학정원 21명 이하	4명 이하	10명 이하	※ 동일한 과목이 1전공과 이중전공 영역에 동시 개설된 경우 분반으로 간주
	② 입학정원 22명 ~ 30명	5명 이하	10명 이하	
	③ 입학정원 31명 ~ 50명	8명 이하	10명 이하	
	④ 입학정원 51명 이상	10명 이하	10명 이하	
부전공 / 융합전공 / 교직		5명 이하	10명 이하	
단과대학 공통영역		10명 이하	10명 이하	
교 양	① 일반 교양	15명 이하	20명 이하	교양대학장의 개설 요청이 있을 경우 개설 (단, 교양영어 및 실용외국어는 제외)
	② 교양외국어 / 체육실기	10명 이하	15명 이하	

▲우리학교 폐강 기준(출처: 우리학교 학사행정 전자규정집)

신청한 강좌가 폐강된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폐강과목 대체 수강신청서를 신청자 본인의 단과대학 이메일로 제출하면 다른 강좌로 대체해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강신청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수강 제한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과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폐강을 통보받은 수강생의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재학생 수강정정 기간 이후에 진행된다. 이번 학기 2차 폐강공고 및 폐강과목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지난 15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였다. 따라서 대체 신청한 강의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개설된 경우 강의 시작 4주차에 해당하는 지난 23일부터 수업 수강이 가능했다. 무엇보다 대체강의 신청은 잔여석이 남아있는 강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기에 잔여석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원래 계획보다 적은 학점을 수강할 수밖에 없다.

임채린 기자 06chaeli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3학년도 후기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3.3.22(수) 9:00~3:30(목) 16:00	2023.5.10(수) 9:00~5:18(목) 16:00
면접전형	2023.4.29(토) 10:00부터	2023.6.17(토) 10:00부터
합격자 발표	2023.5.11(목) 14:00 예정	2023.6.29(목) 14:00 예정

※ 접수방법 : ①온라인 원서접수→②입학원서 출력본 및 기타 지원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 ③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진소 확인→④구술(면접)시험 응시→⑤합격자 확인

◆ 지원자격

1. 특별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023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로 학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5(5.0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2. 일반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http://gra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우편제출 :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 입시문의 : 02)2173-2386, 239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온전히 기댈 곳 없는 경비원, 그들을 위한 학교의 행보는?

우리학교 양 캠퍼스(이하 양캠프)의 경비원 고용 형태는 각기 다르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의 경비원은 우리학교 재단 산하 용역업체 ‘동원안전시스템’에 소속돼 있지만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의 경비원은 외부 용역업체 ‘SK 쉐더스’ 소속

으로 근무한다. 이러한 고용 형태의 차이는 양캠프 경비원의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담은 기사를 통해 양캠프 경비원의 주요 업무 및 근무 환경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캠퍼스의 경비원 노동 실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우리학교 설캠프의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보이는 시설은 경비실이다. 기사 취재를 위해 우리학교 설캠프 정문에 위치한 경비실을 방문했다. 인사와 함께 양해를 구하고 경비실에 들어서니 경비원 A 씨는 교통정리로 분주했던 아침 업무를 마무리 하고 햇살이 들어오는 사무실 안에서 여유를 취하고 있었다. 외대학보 기자라고 소개한 후 명함을 내밀며 짧은 인터뷰를 부탁하니 밝은 미소로 반겨줬다. 학생들 한명 한명이 손자, 손녀 같다며 출근하는 매일이 즐겁다는 그는 자신의 직업에도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방문객 안내와 순찰이죠. 차량이 불비는 1교시 시작 전 아침엔 정문 앞에서 교통 통제 업무도 해요. 단순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매일 아침에 하는 이 일이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근무 환경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달 근무 시간과 복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근무시간을 따져보면 한 달에 209시간 업무를 해요. 정문 앞 경비실에선 저를 포함한 5명의 경비원들이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진 않아요.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진 않고 정해진 시간인 209시간을 채우면 되는 체계예요.”

유연한 일정으로 일한다고 느낀다는 A 씨. 한 달 209시간이란 근무 시간도 그리 강도가 높지 않고 함께 일하는 4명의 경비원들과 서로의 편의를 봐주며 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돼 있는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설캠프 모든 건물의 경비원들이 ‘동원안전시스템’이란 경비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어요. 글캠프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용역업체가 다를 거예요. 동원안전은 학교 재단 산하 업체예요. 따라서 학교와의 불통이나 마찰로 인해 경비원들이 피해를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학교 내부에 본부가 위치해있어 건의 사항 전달도 아주 편하죠.”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원을 간접 고용한다는 우리학교 교무행정팀 측과의 통화 이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용역업체가 우리학교 산하의 회사이기에 직접 고용과 유사하게 복지와 소통에 문제가 없는 듯했다. 근무 시간 도중 빠질 수 없는 식사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식사는 학교에서 따로 챙겨주거나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학가 주변에서 사먹는 편이에요. 휴게실에 웬만한 식기 재료나 요리 시설은 구비돼 있어서 가끔 라면이나 국수 같은 것들이 당길 때면 마트에서 재료를 구매해 직접 요리해 먹기도 하죠. 학교에서 식대 지원도 해주요. 한 달에 9만 5,000원을 식대로 받고 있습니다.”

근무 중 원하는 시간에 동료 경비원들과 식사를 한다는 A 씨. 마지막으로 전면 수업 전환 이후 겪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지난해 2학기부터 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에 오가는 학생이 많아 보니 살피야 할 곳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로 인해 특별히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교통정리△방문객 안내△순찰이기 때문이죠. 새벽 늦게 술에 취해 기숙사로 들어오려는 학생이 가끔 있지만 대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챙겨줘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도 아니에요. 오히려 학생들이 돌아와서 학교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좋아요. 다른 대학교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지만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아파트 같은 거주전용 시설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 대하기도 편한 것 같습니다.”

정문 앞 경비 시설은 낯익고 깔금했다. 경비원 A 씨 뿐만 아니라 동료들 또한 일터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듯했다. A 씨가 일러준대로 우리학교 인문과학관(이하 인문관) 1층을 방문해 경비업체 동원안전시스템에 대해서 더 알아봤다.

우리학교 설캠프 인문관 1층 문구점 옆 104호엔 ‘법인 사업관리과 동원안전시스템’ 본부가 존재한다. 앞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정문의 경비원 A 씨뿐만 아니라 설캠프 경비원 모두가 이 회사 소속이다. 학교 산

하 업체이기에 캠퍼스 내에 본부가 위치해있어 상호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여기서 대표자 B 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업무 중이었던 대표자 B 씨는 흔쾌히 인터뷰를 승낙했다. B 씨에 따르면 우리학교 설캠프 학사건물엔 △정문 5명△교수회관 4명△교수학습개발원 3명△국제관 3명△도서관 3명△대학원 3명△법학관 3명△사회과학관 3명△인문관 3명△교수연구동 2명△사이버관 2명△연수평가원 2명으로 총 36명의 경비원이 일하고 있다. B 씨는 “분기마다 경비원 뿐만 아니라 미화원에게도 근무 환경 만족도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며 “학교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최대한의 복지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과거 우리학교를 졸업했다는 B 씨는 외대학보 소속 기자라고 소개하니 학교에 다닐 적 기사를 꿈꾸기도 했으며 격려와 함께 비타민 음료도 챙겨줬다.

◆글로벌캠퍼스의 경비원 노동 실태

설캠프 취재 이틀 뒤의 이른 아침. 이번엔 우리학교 글캠프에 방문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글캠프의 캠퍼스 크기는 설캠프에 비해 방대하다. 건물도 더 크고 곳곳에 산책로도 조성돼 있기에 관리해야 할 구역이 많아 보였다. 우선 글캠프 교무행정팀에 경비원 용역업체의 현황을 문의해보니 설캠프의 상황과 사뭇 달랐다. 설캠프의 경비원들이 학교의 산하 업체인 동원안전시스템에 소속돼 있는 데 비해 글캠프의 경비원들은 외부 업체인 ‘SK쉐더스’에 고용된 상태였다. 과거 ‘㈜휴먼그린플러스’에서 이름을 변경한 해당 업체는 다수의 경비원들을 우리 학교에 파견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해준 글캠프 경비실의 C 씨는 오랜 기간 SK쉐더스에 소속돼 한양대학교 등 다른 대학교에서도 근무했던 경력자였다. 외대학보 기자 명함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요청한 인터뷰에서 그는 참았던 불만을 토로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수시로 바뀌는 휴게시간은 그의 업무 시간 동안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



▲우리학교 설캠프 내 위치한 동원안전시스템 본부

었다. 고정적인 휴게시간은 캠퍼스 내 통행금지 시간인 새벽 1시부터 5시로 단 4시간뿐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새벽에도 건물 내부 출입을 할 뿐더러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경우도 잦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느라 진이 빠진다고 말했다.

“카드 출입 기기와 같은 장치가 온전치 않은 곳이 많은데 이것이 고장날 때마다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일을 끝내고 나면 휴식시간도 모두 지나 있어요. 언제 쉴 수 있을지 예상이 되면 좋은데 언제 또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를 계속해서 신경쓰느라 힘듭니다.”

더불어 설캠프와 달리 글캠프 경비실의 상황은 열악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설캠프의 경비실은 취사도 구와 함께 비교적 넓은 휴식 공간이 따로 존재하고 업무를 위한 책상이 경비실의 창문 앞에 놓여져 있었다. 반면 글캠프의 경비실은 근무하는 책상과 생활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았다. 취사도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휴지와 같은 생활용품 구매 비용도 경비원들이 사비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통해 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엿볼 수 있었다.

“급여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주간에 받는 돈

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더군요. 취사 공간도 열악한 상황이라 여기서 조리가 불가한데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식대가 한 달에 3만원 밖에 되지 않으니 매 끼니를 외식으로 해결하기가 참 힘들어요.”

C 씨는 복지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추가 업무 또한 스트레스의 요인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2학기 대면 수업이 시작했을 때 추가 업무가 가장 많았어요. 구 기숙사관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청소를 해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청소업체를 부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경비원들에게 청소를 부탁했어요. 저희 업무가 아니니 항의하고 싶었지만 뭐 다른 수가 있나요. 공식 업무 외의 일이지만 위에서 지시하는 업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죠.”

설캠프는 학교 재단 산하 업체인 동원안전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C 씨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설캠프의 경비원 고용 방식은 잘 모릅니다. 다만 용역업체가 특정 대학교에 경비원을 파견한 이상 그 경비원들을 관리하는 건 해당 학교의 몫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저희 복지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점이 일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단점이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봐요.”

SK쉐더스가 동원안전시스템과 달리 우리 학교 산하 업체가 아니다보니 글캠프 경비원들은 △미흡한 근무환경 실태조사△불충분한 식대 제공△학교와의 소통부재 등으로 인해 불만을 겪고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산책로를 순찰하고 있던 경비원 D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하루 세 차례의 순찰을 하는 그는 넓은 캠퍼스를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루 3개의 건물을 도맡아 청소하는 그는 혼자서 하는 이 일이 버겁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수의 학생이 드나드는 건물을 혼자서 청소하고 순찰 외에도 단속 및 자찰한 시설 관리를 하는 게 매우 피로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양캠프의 경비원 복지가 큰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용역업체 본부와 학교 간 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캠프 모두 간접 고용을 통해 경비원을 채용하지만 설캠프는 글캠프와 달리 용역업체가 학교 산하에 존재하며 본부가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다. 이에 용역업체와 학교 본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경비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소통이 가능하다. 실제로 설캠프 교무행정팀 관계자는 “분기별로 경비원의 근무 환경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건의 사항을 받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복지를 위해 관심을 갖는 방식으로 본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글캠프는 학교 외부 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완전한 간접 고용 형태이기에 설캠프에 비해 학교 본부가 경비원 복지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한 편이다. 글캠프 교무행정팀 관계자는 “외부 업체를 통한 업무이기에 학교에서 즉시 개선하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경비원들의 근무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행사로 인한 캠퍼스 내 소음문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문화를 위해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가 완화됨에 따라 전면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캠퍼스 내 각종 행사와 축제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행사로 인한 소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교내 행사를 향유하길 원하는

학생들과 조용한 학습환경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권리가 상충하는 가운데 △행사소음으로 인한 피해△우리학교의 소음대응 실태△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행사소음으로 인한 피해

이번 해 1학기 개강 이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선 △동아리박람회 공연△신입생환영회 공연△의대풍물패연합의 겨울전수발표회 등 세 차례의 대면공연이 연이어 진행됐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완화로 대면 행사의 빈도가 증가하며 일각에선 행사가 수반하는 소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행사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특히 설캠에서 두드러졌다. 외대학보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캠 응답자의 78.5%가 행사소음으로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를 경험한 장소로는 도서관(81.8%)이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관(63.6%)△인문과학관(이하 인문관) (36.4%)△국제학사(27.3%)가 뒤를 이었다. 한편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선 25%의 학생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캠퍼스 내 행사소음에 대해 심유현(동유럽·헝가리어 21) 씨는 “행사를 즐길 권리와 조용한 학습환경에서 공부할 학생들의 권리 중 그 무엇이든 하나에 우선할 수 없다”며 “특히 설캠의 경우 부지가 협소해 조용한 학습환경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행사와 축제를 즐길 학생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음 없는 캠퍼스를 이용할 학생들의 권리도 간과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행사나 축제로 인한 소음은 기숙사에서 감지되는 소음의 원인 중 하나다. 국제학사에 거주 중인 유다인(중국·중의통 22) 씨는 “학교에서 축제나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 소음이 기숙사 내부에 또렷하게 들리고 창문을 닫아도 소음이 없다”며 행사소음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행사나 축제가 각종 자격증시험이나 고시 등 우리학교 학생이 상당수 응시하는 주요 시험 일정과 겹치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일 신입생환영회 행사는 행정고시 과목 중 하나인 공직적격성평가(KPSAT) 시험을 불과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진행됐다. 또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전적인 공지나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미흡해 에타에 항의글이 게시됐다. 일반적으로 행사가 예정되면 학생들의 양해를 구하는 양해문이 게시되지만 이번 신입생환영회에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당시 도서관에서 수험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것이다. 이에 관해 우리학교 설캠 제57대 총학생회장 배귀주(상경·국통 20) 씨(이하 배 회장)는 “당시 행사일이 시험일과 근접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추후엔 사전에 각종 시험 일정을 수합해 수험생들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양해문 미부착에 관해선 급히 진행된 실무 과정에서의 누락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회장은 “향후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양해문을 부착하겠다”며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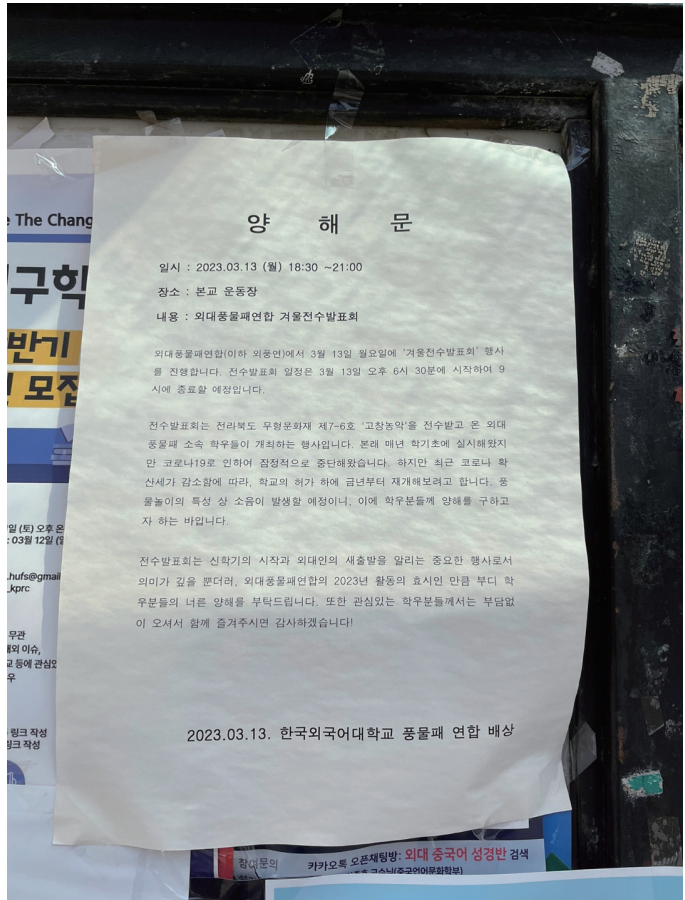
한편 행사로 인한 소음은 강의의 질을 저해하고 원활한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중 91.7%의 학생이 수업 시간에 행사소음으로 인한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학교 설캠 학생지원팀(이하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동아리박람회 행사 등 각종 축제나 공연이 개최될 때마다 다수의 학생과 교·강사로부터 소음 관련 민원이 쇄도했다”고 전했다. 특히 설캠은 캠퍼스 용지가 82,291㎡로 협소한 탓에 소음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행사나 축제와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 소음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를 둘러싼 주거지구와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소음의 피해가 파급된다는 점도 문제다. 설캠의 경우 앞선 설문조사에서 50%의 학생들이 우리학교 캠퍼스 이외에서 행사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우리학교 재학생 신해나란(사범·영교 18) 씨는 “정문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행사소음에 관해 제기되는 불만들에 대해 배 회장은 “모든 학생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교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며 “행사에 관한 학생들의 호응 정도가 높지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학생도 많은 만큼 소음방지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의 소음대응 실태

우리학교 학생지원팀은 행사나 축제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응하는 부처다. 학생지원팀에 따르면 소음이 유발될 수 있는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소음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엔 예

외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만약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축제나 공연이 진행되는 현장을 방문해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행사 주최자에게 음량을 줄일 것을 계도한다. 시정요구에 불응해 문제가 지속되면 행사는 중단되거나 취소된다.

또한 우리학교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고 이에 기반해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8일 개최된 동아리박람회에서 상대적으로 큰 소음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아리 부스의 위치를 인문관을 마주 보던 기존의 구도에서 인문관을 등지도록 조정했다. 또한 오후 5시 이후에 행사를 진행하도록 행사 주최 측에 권유하고 불가피하게 그 이전에 개최해야 할 경우 소음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신입생환영회에선 음향이 큰 공연의 경우 식순을 후반부에 배치하는 등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설캠에선 행사소음 피해를 경험한 시간대를 묻는 질문에 ‘오후 5시 이전’이 72.7%로 가장 많아 이와 같은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행사



▲우리학교 게시판에 부착된 외대풍물패연합의 행사소음 관련 양해문

의 시간대를 규제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부재한 탓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신입생환영회 행사에선 리허설 공연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다. 한편 소음을 수반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허가함에 있어서 우리학교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소음 수준의 구체적 상한을 규정하는 데시벨(이하 DB) 등 정량적 기준은 물론 행사소음에 관해서 상충하는 권리를 조율하는 명문화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소음이 유발될 수 있는 축제나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가한다는 방침 역시 ‘불가피성’을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 실제로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몇 DB까지의 소음만 허가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소음이 예정된 행사나 공연에 대한 양해문 부착도 관련 규정의 부재로 행사 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뤄진다. 비교적 규모가 큰 행사의 경우 학생지원팀에서 행사를 기획한 주체에 양해문 부착을 안내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행하지 않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결국 소음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민원 제기가 유일한 상황이다.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때만 행사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계도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음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훈시적 성격에 불과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학생

지원팀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다”며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행사를 중단시키는 것도 곤란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행사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상충하는 두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율하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소음 대응 절차△양해문 부착△피해구제 수단△행사 개최 시간 등의 사항을 두루 규정하는 명시적인 방침이나 준칙을 마련해 이에 기반한 실효적이며 체계적인 소음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홍주찬(영어·EICC 21) 씨는 “관련 규정이 확보된다면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며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권리도 보장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고 전했다. 충분한 논의와 협의 거쳐 규정이 제정된다면 행사의 정당성이 담보돼 자연스레 학생들로부터 행사 진행에 대한 수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엔 학생들이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양해를 얻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건국대학교(이하 건국대)는 지난 2016년 ‘대동제’ 축제를 진행하면서 학교 근처에 위치한 약 3,000 가구를 대상으로 소음에 대한 양해문을 사전에 전달하고 축제가 끝난 이후엔 협조에 따른 감사문을 전달했다. 또한 건국대 학생지원팀과 총학생회가 협의 과정을 거쳐 기존의 무대시설의 위치를 소음을 감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일부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

한편 기존의 대학교 축제문화가 지역 주민을 배려하며 축제의 진정한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조우인(아시아·이란어 21) 씨는 “가수나 연예인이 등장하는 축제도 즐겁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된다면 더 의미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지난해 선문대학교는 연예인을 섭외하지 않고 포토존 등의 콘텐츠로 구성된 소축제를 개최해 학생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대학교는 인근 30개 업소와 함께 대학 축제를 준비하면서 소음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상인들과 상생하는 축제를 개최했다.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양해를 구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에 배 회장은 “대학교와 지역사회간 상생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인 과제란 점을 고려할 때 좋은 방향으로 보인다”며 “우리학교는 지난해 축제 쿠키아트리아에서 청량리 농산물 시장 상인들과 협업해 부스를 운영한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설캠 총학생회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행사를 전수조사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며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향 스피커 위치를 재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침을 수립해 대응할 계획이다. 시민혁(사회·정의 20) 씨는 “대학교 행사는 모든 학생을 위한 유희의 장인 만큼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배려도 간과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향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캘리포니아 드리밍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가장 먼저 세운 목표는 7+1 파견 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에서 수학하는 것이었다. 이에 지난해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Monterey Bay)에서 한 학기를 보냈다. 전공어가 중국어임에도 파견 국가로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풍부한 경험을 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공과 무관한 학교를 선택한 만큼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다.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작은 마을인 몬트레이(Monterey)에선 가장 가까운 마트로 가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밖에 다니지 않았기에 운전은 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했다. 외국인 학생들은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했지만 난 주로 학교의 시간제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다. 도시 생활에 익숙했기에 파견 초기엔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학교 근처의 깨끗한 바다와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인 경치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주말 밤엔 항상 기숙사와 집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좋았다. 주말엔 친구들과 캘리포니아 각지로 단기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봄방학기간에 2주간 외국



인 친구들과 떠난 로드트립(road trip)이다. 2주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당시 직접 본 미국 서부의 아름다운 명소들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만약 아메리카 대륙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국립공원에 가보길 추천한다. 유명한 도시의 관광지도 즐거움을 주지만 미국의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선 상상조차 못했던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기에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국립공원은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이었는데 폭포까지 등산하는 것

은 힘들었지만 스스로의 한계를 이겨내고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마치 판타지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아름다웠다.

파견기간 동안 세웠던 가장 큰 목표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었기에 행사에 초대받으면 거절하지 않고 모두 참석했다. 이로 인해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내 새로운 면모를 발견해 성격과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다.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가족처럼 가까워지며 기존의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또한 미국 생

활을 하며 내게 펼쳐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 짧지만 강렬했던 미국에서의 삶은 내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을 바꿔준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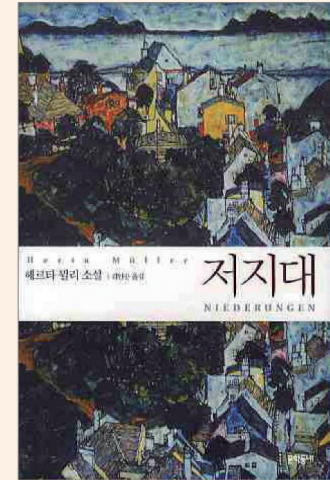
박주희(통번역 · 중국어 18)



독일

<저지대>

-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외침 -



'헤르타 뮐러'(Herta Müller) (이하 뮐러)는 루마니아 출신의 독일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독일계 소수민족 가정에서 성장했다. 루마니아 독재정권의 핍박과 나치의 몰락이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라난 뮐러는 차우세스쿠(Ceausescu)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젊은 독일어권 작가 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뮐러는 늘 독재 정부의 강도 높은 검열에 시달려야만 했다. 1982년 첫 단편집 '저지대'로 등단했으나 정부의 검열 아래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다. 이후 1984년 책의 미검열판이 독일로 수출되면서 독창적이고도 기이한 아름다움을 지닌 이야기로 유럽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후 뮐러는 자신의 책을 급서로 치한 루마니아를 떠나 독일로 망명했지만 독일과 루마니아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다만 그녀는 이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데 '초록 자두의 땅'을 비롯한 대다수 작품에서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의 탄압과 그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청년들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정부의 탄압 속에서 출간과 재출간을 거친 '저지대'는 뮐러가 태어나고 자란 루마니아 바나트(Banat)의 풍경을 몽환적으로 담아냈다. 책은 검열로 인해 삭제됐던 '그 당시 5월에는'과 '잉계'를 비롯한 4개의 편이 포함된 총 19개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책 속엔 어린 소녀의 시선에서 바라본 소수민족의 황폐한 삶과 그 삶을 둘러싼 공포와 공허함이 담겨있다. 이야기의 배경은 루마니아의 독재 아래에 있는 슈바벤(Schwaben) 마을이다. 병든 가족과 어두운 늪지대에서 말라버린 식물들은 음습한 삶의 풍경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가난과 폭력이 팽배한 삶, 그 삶의 저지대로 떠밀린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과 무력감의 그림자가 깃들여있다. 주인공 소녀의 가족들 또한 술과 폭력에 젖어진 채 소녀를 옥죄는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가족과 마을로부터의 해방을 찾던 소녀는 꿈과 자연의 세계로 간접적인 도피를 선택한다.

'저지대'는 부서지리만큼 위태로웠던 뮐러의 유년 시절을 어린 소녀에게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사실적인 묘사와 대비되는 수려한 문체와 시적 표현은 각각의 명암을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 특별한 줄거리는 없지만 책의 모든 곳에서 뮐러와 어린 소녀는 독자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외치고 있다. 외침의 대상은 실존 그 자체다. 이러한 삶이 있었다는 것. 그림에도 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말이다. 우리의 삶은 처절하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다. 삶의 기록에 지쳤다면 삶이 가진 양립성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하는 뮐러의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3.04.17(월) ~ 05.01(월)	2023.05.15(월) ~ 05.29(월)
고사장 발표	2023.05.10(수) 15:00	2023.06.07(수) 15:00
면접전형	2023.05.13(토) 10:00 예정	2023.06.1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3.05.25(목) 15:00	2023.06.22(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3.05.29(월) ~ 06.02(금)	2023.06.26(월) ~ 06.30(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할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야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야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프로그램(샌디에고, 하와이)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산출논문 · 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521 ~ 2FAX. 02-2173-358 (우)0245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ya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외면받는 학과 학생회, 학생자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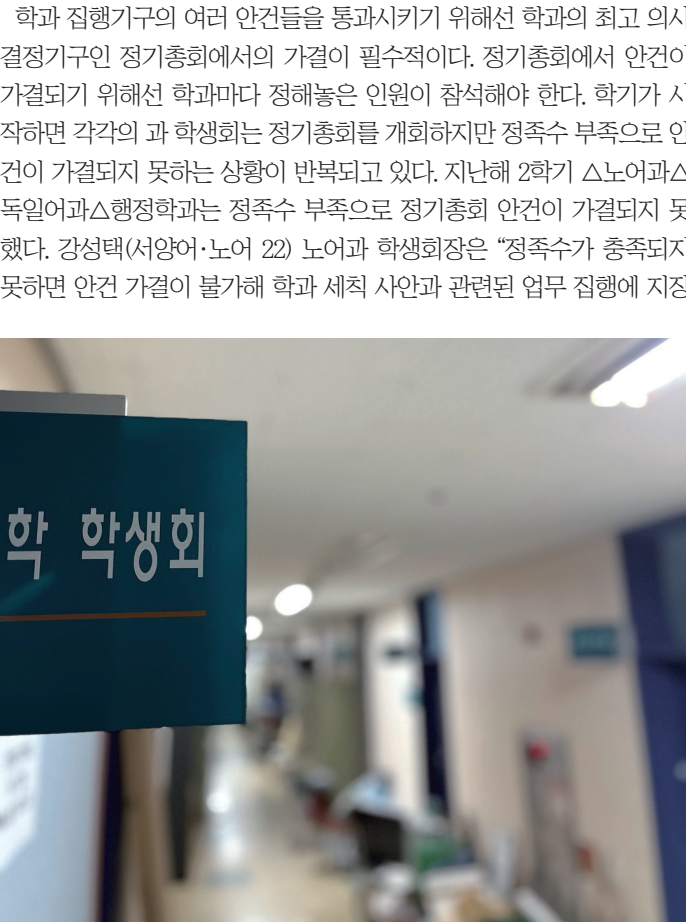
학과 학생회(이하 과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저조한 관심도는 과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다. △정기총회 안건 가결 불가△학과 동아리(이하 과 동아리)와 학회 운영의 어려움△학생회 사업의 실패 등이 그 예다. 과 학생회

에 대한 낮은 관심도가 학생 자치 전반에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과 학생회에 대한 저조한 관심△저조한 관심도가 미치는 영향△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과 학생회에 대한 저조한 관심

과 학생회에 대한 저조한 관심도는 학생사회 운영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외대학보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우리학교 학과 학생회에 대한 관심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2%가 과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저조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과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이유로 △과 학생회 사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65%)△불만족스러운 과 학생회의 업무처리(55%)△접하기 어려운 과 학생회 소식(30%)을 꼽았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졸업과 취업 준비로 과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중국(사회·정의 21)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졸업 요건이나 취업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하게 돼 학과 내 사안에 관심이 적어진다”며 “저학년생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 소속 학과와의 접점이 자연스레 사라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학과 학생회장단(이하 과 학생회장단) 선거의 저조한 투표율 또한 과 학생회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독일어과와 한국어교육과는 지난해 2학기에 진행된 과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학생들의 투표율이 투표성립 기준을 넘기지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베트남어과△브라질학과△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아랍어통번역학과△인도학과△일본어통번역학과△중국어언어문화전공△중국어교통상전공△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페르시아·이란어과△폴란드어과는 선거에 입후보한 학생이 없어 과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노어과와 스페인어과는 투표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선거기간을 연장해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했다.



▲국제학사 내 학과 학생회실

◆과 학생회 관심 저조의 영향

이처럼 과 학생회에 대한 저조한 관심에 따른 낮은 투표율은 과 학생회장단이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와 함께 과 학생회의 공약 이행 여부를 학생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칙 137조에 따라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뒤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그러나 과 학생회의 경우 공약 이행 여부 공시는 의무가 아니다. 단과대학들이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고 과 학생회의 공약을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 공약 이행 검증이 지닌 한계는 과 학생회의 공약 이행 현황을 학생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해 과 학생회에 대한 관심도와 신뢰가 낮아지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생긴다”며 “이에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학과 관련 사안이 제대로 논의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기총회 불참으로 인해 학생회비 결산안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학생회 및 학과 내 동아리와 학회의 학생회비 사용 출처에 대한 감시가 모두 과 학생회의 몫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견제가 줄면서 학생회의 월권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임종원(인문·사학 22) 씨는 “학생회의 예산 사용과 사업 진행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다”며 “정기총회나 학과 공지 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제고돼야 한다”고 전했다.

과 학생회에 대한 낮은 관심도로 학생회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한 경우도 존재했다. △국제통상학과와 과 돕바 사업△지난해 기획된 독일 어교육과의 짝선배·짝후배 프로그램△프랑스어학부의 1학년 연합 멤버십 트레이닝 등이 낮은 학생 참여율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

과 학생회에 대한 저조한 관심도는 학과 내 동아리와 학회 운영에도 문제를 야기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대부분의 동아리와 학회가 활동이 중단됐고 이로 인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오윤정(서양어·노어 22) 노어과 노래패 학회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동아리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저조한 과 동아리와 학회 활동은 학과 소속감을 낮춰 학과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 구조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과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이 학생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 중 △50대△51대△53대 총학은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됐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투표율 미달과 후보자 부재로 인해 11월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3월 보궐 선거가 진행되기도 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처럼 학과 행사 및 정기총회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과 학생회는 △반복적인 공지를 통한 정기총회 중요성 상기△안전 공지△정기총회 및 학과 행사 참여 인증 시 상품 증정 등의 방안으로 과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과 학생회는 학생회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간식사업△문화제△선배들의 이중전공 신청 도움△짝선배·짝후배 행사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국제통상학과 학생회 관계자 A 씨는 “정기총회 결의안건으로 선정될만한 사안은 학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되도록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과 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목소리로 존재한다. 실제로 70.96%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유는(사법·프교 22) 프랑스어교육과 학생회장은 “학과에서 지정한 선거 심사 기준 투표율을 넘기기 위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며 투표 독려의 필요성을 전했다.

과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 학교와 학생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또한 학생자치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학생과 학생회 사이의 건강한 견제 구조가 유지되고 과 학생회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학생들의 관심 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김상헌 기자 06heo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 접수	2023.04.14(금) ~ 05.01(월)	2023.05.12(금) ~ 05.29(월)
고사장 발표	2023.05.10(수) 15:00	2023.06.07(수) 15:00
면접전형	2023.05.13(토) 10:00 예정	2023.06.1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3.05.26(금) 15:00	2023.06.23(금) 15:00
등록에 차감 납부	2023.05.29(월) ~ 06.02(금)	2023.06.26(월) ~ 06.30(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다. 융합미디어콘텐츠학과(융합미디어콘텐츠)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전보장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군사 안보 전문 분야에: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정치행정언론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대학원 입학 안내-대학원 원서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합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전형장소:서울캠퍼스(자세한고사장및고사일은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전보장 : 입학생 전원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 명과 암을 살펴보다

지난 6일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일청구권’의 수혜를 받은 국내 기업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금을 출연해 대납하는 방식의 배상안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다”고 말했다지만 생존 피해자 전원은

이번 배상안에 대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된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강제동원 배상안의 배경△제3자 변제안의 명과 암△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의 배경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은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경제적△물적△인적 자원을 강제로 동원했던 정책이다. 또한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돼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받은 자가 임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강제동원 피해로 규정한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년 만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전까지 일본은 지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일본 최고재판소도 지난 2003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일제강점기 시절의 손해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화 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규제하고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Whitelist)’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이를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맞선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지난 2019년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기구(이하 WTO)에 일본을 제소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력(GSOMIA) 종료를 통보했다. 최근까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한일관계는 경색됐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방치된 상황이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외교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논의가 공식화됐다. 해당 토론회에서 강제동원 피해 보상을 민법상 제3자의 변제로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우리나라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자금 수혜를 받은 국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실제로 수혜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POSCO)는 현재까지 재단에 총 100억 원을 출연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배상안에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제정치적 압력의 영향도 존재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영국 BBC 뉴스는 우리나라 정부의 이러한 행보가 △미국과 중국 간 관계 악화△북한의 안보 위협 심화△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구도에서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제3자 변제안의 명과 암

우리나라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이란 입장이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생존 피해자의 대부분이 90대 전후의 고령이기에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 끝에 일본의 배상을 온전히 받아내기가 쉽지 않으니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특별시 외교부 청사에서 이번 배상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며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배상안으로 인해 한일 경제관계는 정상화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배상안 발표 이후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4개월 만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수출규제에 따른 WTO 제소 절차를 중단했다. 향후 지난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가 신속히 복구된다면 장기간 경색된 한일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산업 형태나 발전 방향에 비추어 보완할 수 있는 게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며 “양국의 국익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3자 변제안은 생존 피해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란 한계가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씨(이하 양 씨)는 “제3자 변제안을 통한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며 “잘못한 사람과 사죄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양 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 유족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일본을 대신해 배상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해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일본과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 등의 근본적인 책임이 결여된 배상안이란 허점도 존재한다. 허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일제의 침략 행위에 대해 일인반구도 비판하지 않는 데 이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과거 위안부 합의 때 일본의 사죄가 존재했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의 위안부 재단 출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번 배상안은 일본과 일본 전범기업에 직접적으로 단 1엔의 지불 의무도 지우지 않는다. 윤 대통령도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일본의 ‘호응 조치’는 거론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과 일본 전범기업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는 전무했다. 또한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이하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표현을 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일본의 추가 호응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며 즉답은 피했다. 이에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번 배상안에 대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과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가 빠진 반쪽짜리 해결안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보유 자산 특별현금화(매각)를 통한 배상안이다. 이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을 매각해 배상하기에 일본 전범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당시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것은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보유 자산 매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선 이러한 외교적 부담을 초래하는 방안 대신에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해결책으로 주목받는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하 심 이사장)은 “피해자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특별법 제정이다”고 밝혔다. 심 이사장이 언급한 특별법은 문화상 전 국회의장(이하 문 전 국회의장)이 지난 2019년에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우리나라 및 일본 양국의 기업과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당시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란 비판을 받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한편 심 이사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내에 특별법 연구지원팀을 만들고자 예산을 배정했지만 상정된 관련 법안 대부분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실현 가능성은 작아졌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앞서 무엇보다도 일본과 일본 전범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문 전 국회의장은 “재단에 의한 변제는 일본이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전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이 이를 계승한다고 발표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70년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서독 총리는 폴란드 유대인 위령탑 앞에 무릎 꿇고 독일을 대표해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사죄했다. 이러한 독일의 뼈아픈 반성과 역사적 용기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당시 세계 언론은 ‘무릎을 꿇은 것은 총리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난 것은 독일 전체’라고 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편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에 대해 일본과 일본 전범기업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일본과 일본 전범기업의 근본적인 사죄와 배상이 없다면 이번 배상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황동현 기자 06donghyun@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더불어민주당, ‘주 69시간제’ 대신 ‘주 4.5일제’로 개편안 제시해

‘주 최대 69시간’ 근로 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주 4.5일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보조금을 제공해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뤄내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주 4.5일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주 4.5일제의 취지는 좋으나 이 혜택의 대상자가 소수 기업에 국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 정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에 따른 병역 면제 제시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벗어나기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지난 22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건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병역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며 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치솟던 탄산리튬 가격, 4개월 만에 급락해

지난해 11월 톤당 약 1억 1,200만 원까지 상승하며 최고치에 도달했던 탄산리튬의 가격이 4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둔화된 중국 전기차 판매 증가세의 영향으로 이번 해 리튬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2일 중국 철강정보업체에 따르면 공업용 탄산리튬 가격은 톤당 약 4,750만 원까지 하락했다. 장상(蔣尙) 황허과학기술원 객원교수는 “지난 2년간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탄산리튬 가격이 10배 넘게 올랐지만 이번 해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며 탄산리튬 가격이 자연스레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러시아, 정상회담 끝난 직후 우크라이나 공격해

지난 22일 러시아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우크라이나 수도권의 학교와 건물에 폭격을 가했다. 당일 새벽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Kyiv)에서 약 64킬로미터 떨어진 소도시의 고등학교 건물이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아 부분적으로 붕괴됐다. 또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Zaporizhzhya)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주거용 건물 두 채가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여전히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점령군의 모든 타격에 분명히 대응할 것이며 러시아의 모든 공습에 △군사적△법적△정치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전 세계 금융위기 불러오나

지난 10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하 SVB)'이 파산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일어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떠오르게 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 금융위기

의 서막 속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손종칠 우리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만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전 세계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자.

손종칠 우리학교 경제학부 교수

Q1. 미국 역사상 2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인 SVB 파산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선 금리상승에 취약한 SVB의 특수한 자산 부채 구조를 짚을 수 있습니다. SVB는 스타트업의 예금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해 상당 부분을 장기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어요.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됐다면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평가손실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투자자의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평가를 통해 자산가치의 손익을 즉시 반영해야 하는 은행에게 이자율의 상승은 보유 중인 국채 가격의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SVB가 이러한 손실을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반영하고 새로운 자본조달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투자자들이 SVB의 주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SVB의 예금주인 스타트업도 유동성이 경색되자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죠. 특히 업무용 매신저와 폰뱅킹에 기반한 비대면 예금인출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대규모 인출사태인 '뱅크런(bank run)'이 발생했고 SVB의 주가는 하루 만에 60%가 폭락하면서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Q1-1. SVB 파산 사태가 미국 현지의 실리콘밸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미국의 예금보장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경우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예금이 많죠. 이에 큰 피해가 우려됐으나 미국 정부가 스타트업이 SVB에 예금한 액수를 전액 보장하는 대책을 발표해 SVB 파산이 실리콘밸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돼요.

Q2. SVB 파산 사태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가 도래한다면 각국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요?

SVB 파산 이후 미국의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미국의 중·소형 은행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2대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부각됐죠. 결국 스위스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조치와 함께 스위스의 최대 금융그룹인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를 통해 세계 주식 시장은 블랙 먼데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미 연준)도 은행권 위기 대응을 위해 △스위스△영국△유로존(Eurozone)△일본△캐나다 중앙은행에 달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통화 스와프** 운용을 강화하기로 조치했습니다. 7일 만기로 운용되던 달러 스와프 계약을 1일 만기로 변경한 것이죠.

Q2-1. 이번 SVB 파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미

국 정부가 선택한 조치의 효용성이 궁금합니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SVB 은행 예금의 전액 보장과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통한 달러 유동성 확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진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은행 유동성 위기로 확대되지 않고 있어 미국 정부의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다만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이어 최근 도이체은행의 주가가 급등락을 이어가는 등 여전히 금융불안 요소와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Q3.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했듯 이번 SVB 파산 사태 역시 대규모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 SVB 파산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투자는 행과 그림자 금융***을 중심으로 막대한 레버리지(leveraging)가 발생했고 이러한 과잉 레버리지가 주택저당증권과 부채담보부증권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전체 금융시스템 문제로 확산됐어요. 그러나 이번 SVB 파산 사태는 저금리 기조에서 형성된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조가 갑작스러운 고금리 기조에서 손실과 예금인출로 이어졌죠.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저금리 기조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손실 누적과 자금경색 심화에 따른 산발적인 금융 불안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돼요.

Q4. SVB에 이어 크레디트 스위스에 금융 위기가 발발하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중단이 현재 도래한 금융위기의 서막을 막을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의 중단은 금융위기의 도래를 막기보다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안정화 속도나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정도가 각 나라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금리 변동이 금융 불안 요소와 상호 연계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기복이 심할 거예요.

현재 △미국△유로△스위스 등 중앙은행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당면한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야 하지만 금융 불안 요소가 부각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다만 파운드화 사태 등 금융 불안을 미리 겪었던 영국은 금융 불안 요소가 부각될 때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기준금리도 올리는 두 트랙(two track)전략을 펼쳤어요. 미국 또한 SVB 파산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 정책에 불가안정이란 목표를 두고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두 트랙 전략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Q5.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94억 원 규모의 SVB 주식을 10만 79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VB의 파산 사태는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있는데 이 사태가 추후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민연금의 운용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SVB 투자에서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을 제외하면 SVB와 연관된 우리나라의 실투자금액은 많지 않아 SVB 사태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죠. 다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현재의 고금리 기조 하에서 저금리 기조에 기반해 구축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포지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에 지방 중소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 관련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대두돼 금융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6. 만약 이번 SVB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해야 하는 대응이 궁금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금융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대된다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례를 참고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대규모 외환 유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죠. 대규모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사전에 미 연준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중소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와 예금인출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의 적절한 유동성 공급과 질서있는 예금 보장 절차의 집행을 통해 개별적인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 위협으로 파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죠. 더불어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 요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블랙 먼데이: 월요일 주식 개장과 함께 주가가 대폭 하락하는 것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의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
***그림자 금융: △사모 펀드△투자 은행△헤지 펀드 등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 회사
****파생금융상품: 금융 자산을 기초로 해 금융 상품의 가격 변동을 예상해 만든 상품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자산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된 편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 관리 방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가치를 판단해 대출해주는 방식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

대한민국의 리더, 미래육군의 중심

육군학병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2023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지원자격

•연령 : 입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학군 정시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학군 사전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기간 : 2023년 3월 2일 ~ 4월 5일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일정 - 필기고사 : 4. 15.(토), 합격자 발표 : 5. 4.(목)
- 면접평가 : 5. 22.(월) ~ 6. 9.(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8. 14.(월)
※ 세부사항은 '23년 모집요강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 한외국어대학교 학군단
서울 02)2173-2595 / 글로벌 031)330-4148



봄과 함께 찾아온 외대학보

열정적이고 즐거웠던 10대 시절과 달리 내 스무 살과 스물한 살은 방황의 연속이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지만 난 재수를 했다. 그래서 두 번째 수능을 위해 1년을 통째로 쏟아부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몸과 마음의 지칩도 무시할 수 없었다. 지난해 우리학교에 입학한 후 하루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약속이 없으면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져 있는 날이 많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잘 들지 않아 방 안에서 보냈던 시간이 많았다. 무기력증은 점점 심해져 도광치듯 1학기를 보내고 2학기엔 휴학까지 단행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어느새 겨울이 왔다. 겨울이 오니 마음은 더 좋지 않았다. 이때 만난 것이 외대학보다. 외대학보에 지원한 이유는 앞으로 몇 년은 더 다녀야 하는 학교이니 마음 붙일 곳을 찾고자 함이 컸다. 물론 내 꿈이 방송 기자이고 글 쓰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었다.

외대학보 생활의 시작은 분명 즐거웠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내가 상상하던 생활 그대로였으나 세부적으로 조금 달랐다. 우선 내가 그동안 써왔던 글과 학보에서 추구하는 글이 달랐다. 내 글은 주로 에세이 대회 출품용이거나 심심풀이 소설 한조각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했다. 에세이나 소설은 그 자체로 힘이 있다기 보다는 그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낸다. 글쓰이는 막연한 아이디어를 던질 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구체화 할지 결정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그러나 신문 기사는 그 자체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에세이나 소설보다 더 직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현실을 투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힘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이름을 걸고 영향력을 잠시 빌려오는 것이기에 글에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난 외대학보의 영향력을 빌려 기사를 쓰기에 내 글을 더 신중히 검열해야 했다.

문체의 차이도 컸다. 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모호한 답변을 답답해 하지만 정작 글을 쓸 때 미사여구를 많이 쓰는 편이다. 학창 시절에 읽던 소설들의 영향을 받아 내 문장은 매우 감상적이고 모호했다. 이런 내 문체는 외대학보에 들어와 더 간결하고 직관적인 문체로 바뀌었다.

주제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난 내가 속한 조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문제점을 찾아 내는 성격이 아니다. 이에 우리학교에게 바라는 점이나 불만이 크게 없었고 기사 주제 선정에 어려움이 따랐다. 동료 기자들은 기획 기사 주제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회의날 멋진 주제들을 가져오는데 난 마땅한 주제가 떠오르지 않아 다른 분야의 기사로 방향을 틀곤 했다. 다행히 이번 1078호에선 평소 관심 있었던 교내 경비원의 복지에 대한 기획 기사를 작성하게 됐다. 취재 과정이 수월하진 않았지만 이번 기사를 통해 내 주변의 것들을 조금 더 찬찬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좋은 습관이 든 것 같아 외대학보에게 감사하다.

고등학교 시절의 나와 스무 살, 스물한 살의 나 그리고 지금 스물두 살의 나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바뀌었다. 확실한 것은 방황했던 지난해와 달리 지금의 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했다. 여기엔 외대학보 사람들의 영향력도 크다. 일을 할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다정한 사람들이다. 처음엔 마음 붙일 곳을 찾고 싶어 외대학보에 지원했지만 이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크다. 우리학교 구성원이 편하고 유익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내 글이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앞으로 더 좋은 기사를 쓰고 싶다. 내가 애정하는 외대학보 사람들과 함께 좋은 기사를 쓸 앞으로의 나날이 기대된다.



고서연 기자

[소설 ‘날개’를 읽고] 옥상으로 내모는 무력감의 사회에 대해

사회 속 개인의 무력감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학창 시절 내 ‘위시리스트(Wishlist)’는 내 손 안에 있었다. 갖고 싶은 것들은 용돈을 모아 내 힘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학창 시절 세웠던 목표 역시 내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대학교 생활을 하다보니 개인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이 많아졌다.

아직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명확히 말할 수 없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예컨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기성이 민주주의의 정의를 침범해선 안된다는 것과 국가 존재의 이유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란 점 등은 사회 구성원이 인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순쉬운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처럼 온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무력해진다.

작가 이상의 ‘날개’는 일제강점기 시절 식민지의 현실 뒤에 존재했던 개인의 무력감과 암울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설은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남자의 시점으로 전개되며 외부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외로운 일상을 보여준다. 이상은 식민지화 된 근대도시 경성의 일상을 고발하면서도 암울한 시대 속 개인은 철저히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주인공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지만 그 시대의 지식인을 빗댄 인물이다. 지식인들은 자독한 무기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력에 빠졌고 깊은 우울로 분노조차 드러낼 수 없었다. “나는 또 네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이는 소설의 주제를 관통하는 대목으로 일제 강점기 치하 아래 자신의 소신을 실천하지 못한 지식인의 좌절을 보여준다. 이상은 이 소설을 발표한 이듬해 사상범으로 체포됐다가 얼마 후 세상을 떠난다. 소설 속 주인공도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다 결국 백화점 옥상에서 몸을 던진다.

지도자는 숙명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야 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날개의 주인공과 같이 무력감을 느끼는 사회의 구성원이 없도록 국민들을 계속해서 일깨워야 한다. 앞으로 일제강점기와 같이 가해와 피해가 뚜렷한 상황에 놓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암묵적으로 개인의 입을 막고 지식을 사정한다면 사회는 모두를 희망 없는 옥상으로 내몰 것이다.

고서연 기자 06syko@hufs.ac.kr

[영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을 보고] 상실을 극복하는 힘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상실은 필연적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상실을 경험한다. 연인이나 친구와의 이별, 소중한 공간이나 대상과의 결별 등 상실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다. 상실의 격랑이 지나간 자리엔 공허와 결핍이 남는다. 이런 상실이 수반하는 고통은 너무도 실체적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이치는 너무도 자명하지만 그 상실이 우리를 덮칠 때 그것은 개인적인 서사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했던 ‘상실’은 소중한 대상을 잃었을 때 비로소 현재의 사건이 된다. 그리고 현재적인 사건이 된 이상 우리는 그것이 불러오는 고통과 조우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런 상실의 고통을 다루는 단편영화다. 영화는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사고로 아이를 잃은 한 부부가 함께 식사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부부는 자녀를 떠나보낸 슬픔으로 압도한 나날을 보내며 집안 곳곳에 놓인 아이의 흔적을 발견하곤 눈물을 흘린다. 비탄에 잠긴 부부는 아이와 함께했던 추억과 과거의 장면들을 회상한다. 학교에서 총성이 들리는 장면을 끝으로 회상은 멈추고 부부는 슬픔 속에서 서로를 껴안는다. 부부의 그림자가 교차하고 아이의 형상이 나타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영화는 약 12분으로 매우 짧지만 상실의 고통을 심층적이고 농밀하게 조명한다.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그림자’는 관객에게 큰 인상을 남긴다. 영화의 첫 장면인 식사 장면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림자는 서로 증오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선 부부

의 그림자는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하지만 이내 실패하고 만다. 상실은 우리를 과거에 고착시킨다. 상실이 일어난 시점에서 우리의 시간도 멈추는 것이다. 과거의 추억을 탐닉하고 후회와 죄책감에 잠식되는 것이 상실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다. 때론 고통에 압도된 나머지 서로를 비방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그림자는 상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상실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영화는 그 해답을 고통을 매개로 한 사랑과 연대에서 찾는다. 마지막 장면에서 부부의 그림자가 서로를 껴안을 때 아이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리고 참사와 같은 사회적 상실에 대한 애도는 이와 같은 연대의 기반 위에서 성립한다. 상실에 근거한 연대는 상실을 부인하거나 선불리 봉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실을 오롯이 우리의 상흔으로 받아들이는 실천이 수반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실이 만들어낸 공백의 지점에 상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출현한다. 동일한 고통을 공유하는 이들은 연대를 통해 고통 너머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대는 상실과 고통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확증이다. 그리고 이런 확증만이 상실로 멈춰버린 우리의 시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결국 우리의 슬픔을 유유히게 애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서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것이다.

송성윤 기자 06sysong@hufs.ac.kr

1077호 학보를 읽고

현성민(서양어 · 포르투갈어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더 나은 학교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며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하루와 함께 우리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신입생 환영회와 동아리 박람회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주제적인 학교생활 위해 우리학교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대학보 1077호에선 우리학교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다뤄 더 나은 학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3면에선 우리학교 의결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학기부터 우리학교에선 △기숙사 의무식 시행 △대학원생 및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성적평가 방식 개선△학부 수업시간 변경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우리학교가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고루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실제로 우리학교는 기숙사 의무식에 대해 과반수의 학생들이 반대했음에도 이를 강행했다. 대학원생 및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과 성적평가방식에서도 학생들의 분명한 반대가 존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 우리학교의 불합리한 의결구조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는 학생의 총장선거 투표 반영률이다. 총장선거에서 우리학교 학생의 투표 반영률은 5%로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와 같은 우리학교의 불합리한 의결구조를 개선하고 소통창구를 마련해 학내 사안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4면엔 신설학과 설립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학과 신설은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입학정원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에 기존 학과의 정원을 줄여야 한

다. 또한 학과 신설로 인해 겸임교원이 증가한다면 교수진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우리학교는 정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과 존치를 통한 정원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뤄진 중북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대가 심했기에 추후 학교의 행보에 어려움이 보인다. 필수적인 만큼 부차용도 분명한 이 사안에 대해 △교원△학생△학장 간의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7면에서 다른 대학교 연구소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교 연구소는 학부 차원을 넘어 전문인력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기관이기에 유의미한 활동을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 현재 우리학교엔 4개의 연구센터 산하에 33개의 연구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는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심지어 연구 실적이 없는 부실 연구소도 존재한다. 연구원을 9명가량 채용하는 연구소가 있는 반면 연구원을 아예 뽑지 않은 연구소도 존재한다. 이는 우리학교 연구소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편 연구소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기사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학교는 다른 대학교에 비해 연구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자체적인 연구소 개편을 통한 연구소의 성장이 필요하다. 외대학보는 우리학교의 변화를 알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외대학보가 더 나은 학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길 바란다.

1077호 학보를 읽고

분홍빛 설렘과 함께하는 바람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돼가고 있다. 캠퍼스는 따뜻한 봄바람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미소로 가득 차 있다. 학생들을 설레게 한 봄바람은 외대학보에도 불어왔다. 외대학보 1077호는 △우리학교 의결구조의 문제점△신설학과 설립에 따른 기존 학과 존립 문제△불붙은 등록금 인상 논의△우리학교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3면에선 지난 2021년부터 논의된 우리학교의 불합리한 의결구조를 조망했다. 이번 학기부터 변화된 여러 규정은 대부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강행됐다. 특히 성급하게 시행된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퍼)의 기숙사 식당 의무식과 학부 수업 시간 변동은 기숙사 식당과 학내 통학버스 이용에 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의 불분명한 의결구조와 통보 행정에 불만을 느꼈다.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정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4면에선 우리학교의 신설학과에 대해 다뤘다. 학교에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 신설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학교가 발표한 신설학과 설립 계획은 학생들의 궁금증을 유발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신설학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에 진행된 글캠퍼의 학과 폐과존치는 유사·중복학과 학생들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강행돼 학생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기사에서 제시했듯이 학교는 신설학과와 관련해 추가 진행될 사안에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학과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

설학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5면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불붙은 대학교 등록금 인상 논의를 다뤘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등록금 인상 논의는 정부의 부족한 지원으로부터 야기됐다. 치솟는 물가와 함께 등록금 또한 인상의 조짐을 보이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학교는 재정 구조를 개편하고 정부는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교와 정부가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

7면에선 학내 연구소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학교엔 이공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학과가 존재하지만 주로 어문학 및 지역학에 대한 연구만이 활발히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에 설립된 연구소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허점도 드러났다. 교내 연구소는 우리학교의 학문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집단의 총체이기에 학교는 연구소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학교 연구소의 문제를 점검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때다.

외대학보 1077호에선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았는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보낸다. 이에 학교도 교내 언론과 발맞춰 학생들의 바람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원하는 설렘 가득한 대학교 생활이 계속되길 바란다.



국 · 부장 고정칼럼

모두를 위한 학교

3월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가 완화되며 오랜만에 대면으로 맞이한 새학기인 만큼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달을 보냈다. 각 학과의 학생회는 학생자치 실현을 위한 새 여정을 시작했으며 학교 곳곳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학내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학생들은 지난 겨울방학에 구성했던 시간표를 재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을 뿐 아니라 각종 행사를 즐기며 새로운 출발을 기념했다.

우리학교 구성원이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새로움에 적응했던 한 달여간 여러 문제점 또한 나타났다. 우선 폐강 절차에 대해 많은 학생이 불편함을 토로했다. 특히 불명확한 폐강기준과 복잡한 폐강 절차가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학교 측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효과적인 폐강 절차 및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비원의 근무 환경과 복지 실태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양 캠퍼스(이하 양캠퍼)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취재한 결과 서울캠퍼스 경비원의 복지가 글로벌캠퍼스 경비원의 복지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양캠퍼의 경비 업체와 학교 간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양캠퍼 경비원의 근무 환경이 고루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다.

일부 학생들이 대면으로 진행된 행사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행사를 충분히 즐기려는 학생들의 권리와 조용한 학습 환경을 요구

하는 학생들의 권리는 무엇 하나 간과돼선 안 된다. 행사소음 대응을 위한 명문화된 규정 마련 등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학과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들며 학생자치 전반에 위기가 도래했다. 학과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로서 학교와 학생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학생들이 학과 학생회가 집행하는 정책과 제시하는 안전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제안한다면 더욱 발전된 학생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외대학보 1078호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이 캠퍼스 내에서 겪고 있는 여러 불편함을 다각도에서 조명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갈등 주체 간에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 꾸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학내 사안에 반영되는 우리학교가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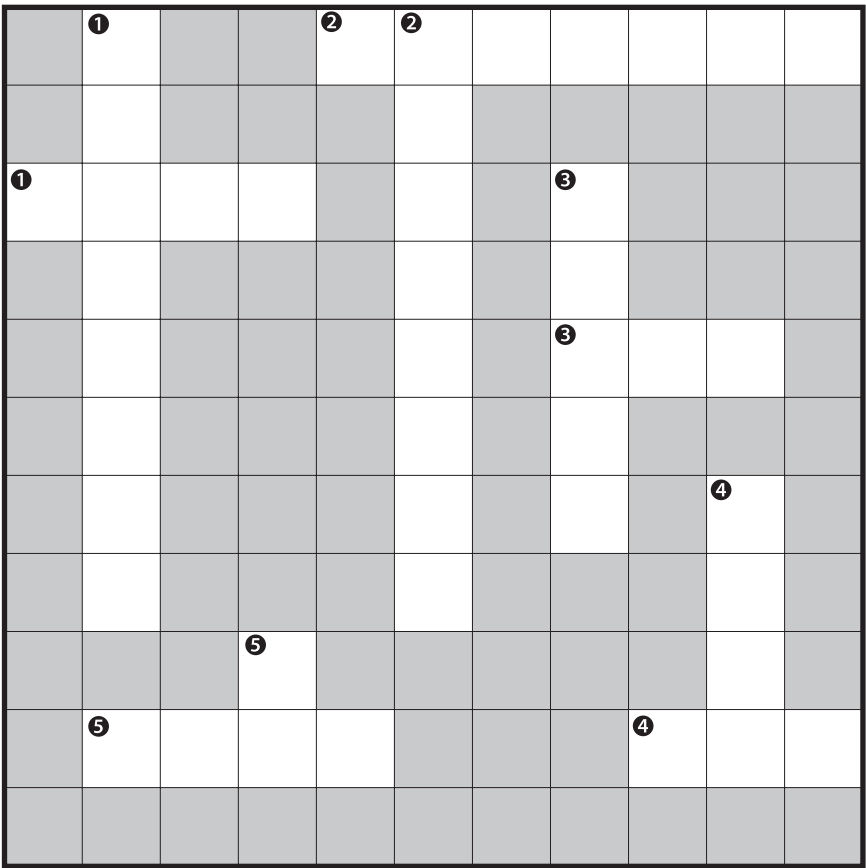
지명원 부장 04jimw@hufs.ac.kr

외대만평



김유빈(중국 · 중언문 19)

십자말풀이



가로

- 지난 10월 우리학교는 ○○○○와 초등학생의 여학 멘토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면 참조)
- 제3자 번째안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의 수해를 받은 국내 기업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금을 출연해 대납하는 방식의 배상안이다. (8면 참조)
- 김민정 학생 · 인재개발처장은 "서포터즈 활동이 학생의 눈높이에서 기획된 ○○○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내 구성원에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1면 참조)
- 우리학교 양 캠퍼스(이하 양캠퍼)의 ○○○ 고용 체계는 다르다. (4면 참조)
- 교양외국어 및 체육실기 수업은 ○○○○의 경우 10명 이하 그리고 분반이 개설된 경우 15명 이하의 강차가 폐강된다. (3면 참조)

세로

- 지난 9일 우리학교 직원노동조합인 ○○○○○○○○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이하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는 이문일공직 1호점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2면 참조)
- 삼갈레이 · 인도네시아어과△인도학과△○○○○○○○○ 등의 학과는 선거에 입후보한 학생이 없어 과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못했다. (7면 참조)
- 지난 10월에 일어난 ○○○○ 은행 파산 사태는 전 세계 금융시장 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더불어 정기총회 불참으로 인해 ○○○○ 결산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 (7면 참조)
- 마지막으로 입학정원이 51명 이상일 땐 강차 수와 상관없이 수강생 10명 이하의 강차가 00된다. (3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챗GPT와 질문하는 인간, 대학교육

개강을 하고 한 달이 지났다. 개강 직전 대학에서 강의하는 이들, 특히 글을 쓰는 인문학 관련 교수들의 화두는 단연 챗GPT였다. 어떤 질문을 던지면 매우 빠른 속도로 그럴싸한 답을 만들어내는 챗GPT. 출시되자마자 100만 사용자를 돌파했다는데, 일반적인 정보성 답변은 물론, 인간 심리를 관통하는 답변까지 내놓는다니 놀랍다. 챗GPT가 시도 쏜다며 한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사춘기로 방황하는 딸에게 줄 시를 영어로 써달라고 부탁하니 챗GPT가 멋지게 써주었다. 시를 평생 공부한 인간-친구보다 챗GPT가 더 나은 것 아닌가. 챗GPT의 시는 평범했지만 그때부터 챗GPT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챗GPT에서 챗(Chat)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AI)이란 의미다. 여기서 조건이 되는 것은 GPT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미리 훈련된 생성 변환기라는 뜻. 오픈AI가 개발한 언어모델의 일종이다. 여기서 언어 모델은 영어, 한국어 등의 언어 각각을 말하기보다, 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올지 단어의 배열을 통계로 예측하는 모델을 뜻한다. 그래서 챗GPT의 작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와 확률이다.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챗GPT의 최고 장점은 어떤 질문을 주더라도 거뜬히 답을 만든다는 점이다. 그것도 아주 빨리. 그럴싸하게.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챗GPT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된다. 통계와 확률에 기반하여 답을 조립하므로 정보가 적은 분야는 대답이 형편없다. 영어보다 한국어에 기반한 질문에서 엉터리 답이 많이 나오는 것도 확보된 정보가 적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적은 정보량으로는 미리 훈련된 생성변화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통계를 적절히 조합하여 지식과 명제를 만드는 AI는 그러므로 통계적으로 입력되지 않은 분야는 고장 난 라디오처럼 삐걱댄다. 그럴싸하게 조합된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너무 많은 구멍과 오류가 있다. 유명한 문학작품만 보더라도 주인공과 줄거리가 다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챗GPT는 언어별, 문화별로 근본적인 불평등을 노정하고 출발했는데, 이용자가 많아서 유료로 된다면 그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만 부각하여 챗GPT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과거 역사를 더듬어 보면 혁명이 버금가는 기술의 발전이 있을 때 과격한 거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낳았다. 우리 또한 급격히 변하는 AI시대에 인간 능력에 대한 자괴감이나 거부보다는 지혜로운 대처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몫은 아무래도 질문하는 인간에 있겠다. 질문하는 인간, 호모 콰렌스(Homo quaerens)는 슬기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에 비해 생소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AI시대에 점점 더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한 개념이 될 것이다. 축적된 통계 안에서 지식을 구현하는 챗GPT는 질문자의 질문 방식에 따라 확연히 다른 답을 내놓는다. 챗GPT와의 대화는 선문답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 대화가 성공하려면 최대한 정교하고 정확한 질문을 해야 한다. 주어지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만 강조하는 지금의 대학교육에서는 질문하는 인간은 길러지지 않는다. 앞으로는 기능적으로 정보를 잘 모으고 정리하고 축적하는 능력 외에 잘 질문하는 인간을 키워나가야 한다.

질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하는 인간을 키우는 교육은 열린 시선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좋은 질문은 좋은 대화를 낳는데, 좋은 질문을 하려면 질문자가 맥락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질문자나 대답자 모두가 성장하는 질문이 가장 좋은 질문일 것인데, 챗GPT와의 대화에서 서로가 얼마나 성장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다. 잘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똑해 보이는 낯 두꺼운 챗GPT 앞에서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거라는 것. 질문하는 인간을 기르려면 교육의 장에서 많이 읽고 많이 쓰게 해야 한다. 경험을 글로 반추하는 일, 글을 읽고 자기 나름으로 정리하고 거기서 적절한 질문을 만드는 능력은 쉽게 길러지지 않는다. 그 훈련은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훈련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대학교육이 잘 질문하는 인간을 기르고 있는지, 혹시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때다.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시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4sangyeo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김상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우리나라 핀테크 보안·인증 시장의 개척자

김종서 아톤 대표를 만나다

아톤(ATON)은 금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간편인증 및 핀테크(Fintech)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초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개발△국내 최초 소프트웨어형 보안매체 개발△안드로이드(Android) 모바일 뱅킹 개발의 성과를 이룬 핀테크 보안기업이다. 특히 △SKT△KT△LG+ 통신 3사와 공동으로 제공 중인 전자서명 서비스 'PASS 인증서'는 지난해 기준 서비스 이용자 3,600만 명을 넘어섰고 대형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안·인증 솔루션을 공급하며 대한민국 핀테크 보안·인증 분야 선두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김종서(공과·컴퓨터 89) 아톤 대표(이하 김 대표)는 현재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을 겸임하며 우리나라 핀테크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적인 보안 기술로 우리나라 핀테크 시장을 이끌어가는 김 대표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컴퓨터공학학부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수학에 관심이 많았고 산업공학을 전공하던 친형이 컴퓨터공학에 진학할 것을 강력히 권유해 입학하게 됐습니다. 당시 컴퓨터공학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지만 형을 믿고 따르는 편이라 컴퓨터공학학부에 진학하게 됐죠. 당시엔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지금처럼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학교에 입학하니 다른 학교에 비해 젊고 열정 넘치는 교수님이 많이 계셨고 학과 교육과정도 체계적이어서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Q2. 기억에 남는 대학교 시절 활동이 있나요?

우리학교 대학원 진학 후 현재 국내 IT 업계에서 크게 성장한 기업인 '다우기술'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IT 관련 전공자가 금융권에 취업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다우기술에서 일하는 동안 다양한 업무를 익히고 IT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해 아톤을 창업할 수 있었죠. 또한 '탭(TAP)'이란 학과 독서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독서보다 등산을 더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특별한 학교생활은 아니었지만 나를 재밌고 알찬 대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Q3. 아톤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로 시작해 현재는 국내 대표 핀테크 보안·인증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주력 사업 분야가 변해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톤은 피쳐폰(2G) 시절에 많은 사람이 증권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MTS 등장 이전엔 인터넷이 연결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해야만 온라인 주식 거래가 가능했기에 MTS의 등장은 굉장한 혁신이었죠. 이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아톤은 국내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안드로이드 뱅킹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 다양한 IT 금융 서비스를 최초로 선보이며 성장했습니다. 2010년 이후엔 금융권 내에서 보안·인증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업계에서 가장 먼저 모바일 OTP와 간편인증 솔루션을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면서 보안·인증 업계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현재 대다수의 국민이 국내 주요 은행 앱에서 공인인증서와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없이 간편한 본인인증으로만 송금을 할 수 있게 된 건 아톤의 기술 덕분이지요.

Q3-1.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국내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이전인 2010년경 아톤은 관련 기술과 인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증가했고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스마트폰 관련 엔지니어를 공격적으로 영입하기 시작했죠. 이에 아톤의 핵심 인력 중 상당수가 △대기업△은행△증권사 등으로 이탈했어요. 이후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교육 지원과 각종 복지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게 즐거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사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함께 고생하며 회사의 성장을 도모했던 직원들을 떠나보내며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Q4. 통신 3사와 함께 제공중인 PASS인증서와 아톤의 사설인증 솔루션은 △공공기관 △금융사△정부 등에서 주요한 인증서 제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톤의 간편인증이 많은 분야에서 각광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존 금융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보안카드△OTP 등을 통해서만 본인인증이 가능했기에 번거로웠습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보장에 자신이 없어서 보안을 이유로 국민에게 불편함을 전한 것이죠. 이에 아톤은 스마트폰 내에서 암호화 키와 암호·복호화 알고리즘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안전성을 높인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그 결과 이제 많은 사람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Q5. 핀테크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아톤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아톤은 'Life Innovator'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세상을 더 편리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이지요. 새롭고 혁신적인 것이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니에요. 일상의 불편함을 남들보다 더 세심히 관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Life Innovator'의 역할이자 아톤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6. 아톤은 △공공기관 인증 서비스 제공 확

대스핀테크 기술 기업으로의 투자스핀테크 인증·보안 서비스 확장 등 사업을 폭넓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1999년에 설립된 아톤은 창립 20주년이 넘었지만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이어오고 있어요. 이번 해부터 아톤이 보유한 인증·보안 솔루션 사업을 확장하고 아톤과 함께 핀테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메타버스△생체인증 등 유망 분야의 기술 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소수의 자산가만이 프라이빗 뱅킹(PB)을 통해 개인 자산관리를 누리고 있지만 로보어드바이저(roboto-advisor)**는 AI 기술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일반 대중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에 아톤은 최근에 투자한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을 통해 종합 금융업 진출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인도네시아△일본△스칸디나비아에 모바일 OT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금융 및 핀테크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아톤 역시 해외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Q7. 최근 금융산업에서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가 만연해지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핀테크 보안 서비스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역량은 세계와 비교했을 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신경 써야 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완제품과 서비스 출품 이후의 보안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모든 영역에 보안이 존재해야 합니다. 구글(Google) 등 미국의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은 매해 화이트해커(white hacker)***를 고용해 자사의 서버를 공격할 것을 지시하죠. 해킹으로 자사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알아내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보안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완벽한 보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기업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특히 기업들은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해요.

Q8. 핀테크 보안기업의 성장을 이끈 대표로서 꾸준히 노력하고 계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톤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호기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호기심이 매우 많은 편이며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집요한 호기심과 주변에 대한 세심한 관심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끊임없는 호기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고 있죠. 또한 매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보완할 점을 검토해요.

Q9. 회사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성장'입니다. 과거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정제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장은 회사의 기술 경쟁력과 매출 등 외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톤의 조직문화와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 및 만족도 또한 이에 해당하죠. 개인의 성장이 곧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이를 아톤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Q10. 핀테크 산업 직종으로 진출하길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정을 추구하기보다는 도전적이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강한 학생들이 핀테크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길 희망합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IT 산업에 더 많이 진출할수록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IT 산업의 인재가 돼 혁신적인 기업을 탄생시키고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 방식

**로보어드바이저(roboto-advisor):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모바일 기기나 PC가 고도화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화이트해커(white hacker): 악의적인 해킹에 대응해 인터넷 시스템 파괴를 막는 해커

정연아 기자 06zncung@hufs.ac.kr

www.ekmtc.com

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고려해운이 새로운
100년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 더 밝은 미래를 여는 혁신,
더 깊은 가치를 위한 창조, 그 중심에 고려해운이 있습니다.

본사 고객센터 Tel. 02-311-6114 Fax. 02-6008-8000
부산지점 고객센터 Tel. 051-461-2800 Fax. 051-463-7281
인천사무소 Tel. 032-883-2800 Fax. 032-232-0825
울산사무소 Tel. 052-261-0234 Fax. 052-261-0233